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16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21,1-19)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21,1-19

어디서 본 듯한 장면, 꿈속에서 봄직한 장면이나 상황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데자뷰(dejavu)라고 한다. 일종의 착각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복음말씀을 읽다보면 언제 한번 읽었던 장면임을 쉽게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그 말씀 한마디에 밤새 허탕쳤던 베드로와 다른 이들은 순순히 응했고 그 결과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하고 제자들에게 이르신다. 제자들은 밤새 허탕 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 그 결과 이번에도 그물을 끌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처음에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제자로 불림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은 직감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역시나 그랬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기적으로 그들과 만나신다. 그리고 아침까지 차려놓고 기다리는 자상함을 보여주신다.

넷가나 강가에 솔단지를 걸어놓고, 물고기 잡는 천렵을 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예수님은 역시 뭘 좀 아신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와서 아침을 먹어라.” 나의 표현대로 하자면 “해장하자!”

잠시 사족을 붙이자면, 내가 월요일 새벽미사가 끝나고 신자 몇 분과 해장국을 먹기 시작한 것이 벌써 3년이 되어간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던 아침식사를 재현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다.

예수님께서 먹는 문화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많이 선포하셨다. 가난한 이, 세리, 바리사이 할 것 없이 어느 계층의 사람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었다. 그 식사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성찬의 전례, 즉 미사의 표본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먹는 문화의 격조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육적인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도 해소시킬 수 있는 식사문화가 필요하다. 가족들과 얼마나 자주 식사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는가 반성해 보고, 부모가 먼저 식사문화의 품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반모임 끝나고 차 한잔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다. 보다 건설적이고, 우리 영혼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수원교구 4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아가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아가의 간추린 소개

저자

책머리에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아가1,1)라고 하여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임을 밝히고 있지만 누가 이 책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집필 시기

기원전 4세기경의 작품으로 유배 이후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귀환 이후에 편집되었습니다.

집필 형식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대화체로 솔직 담백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일종의 연애극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집필 내용

여덟 개의 장으로 구성된 아가 안에는 다섯 개 시집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가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8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바탕으로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공지사항

-2010년 부활절 세례식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 신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단 성경말씀

루카 24,46-53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 당부는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일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저서 원정수
적목 현정수

하느님 백성 자녀들아! 모두 모여라

우리 외로운 주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로

중기 하고 봉사하자 세상 모두에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